

금빛 물고기 이야기

글 | 김주영

그림 | 밀 탐파논

글 | 김주영

그림 | 밀 탐파논 (Meel Tamphanon - ภัศราภรณ์ ตามภานนท์)

편집 | 김은파, 이수인

편집 디자인 | 이해명

베트남어 번역 | 황티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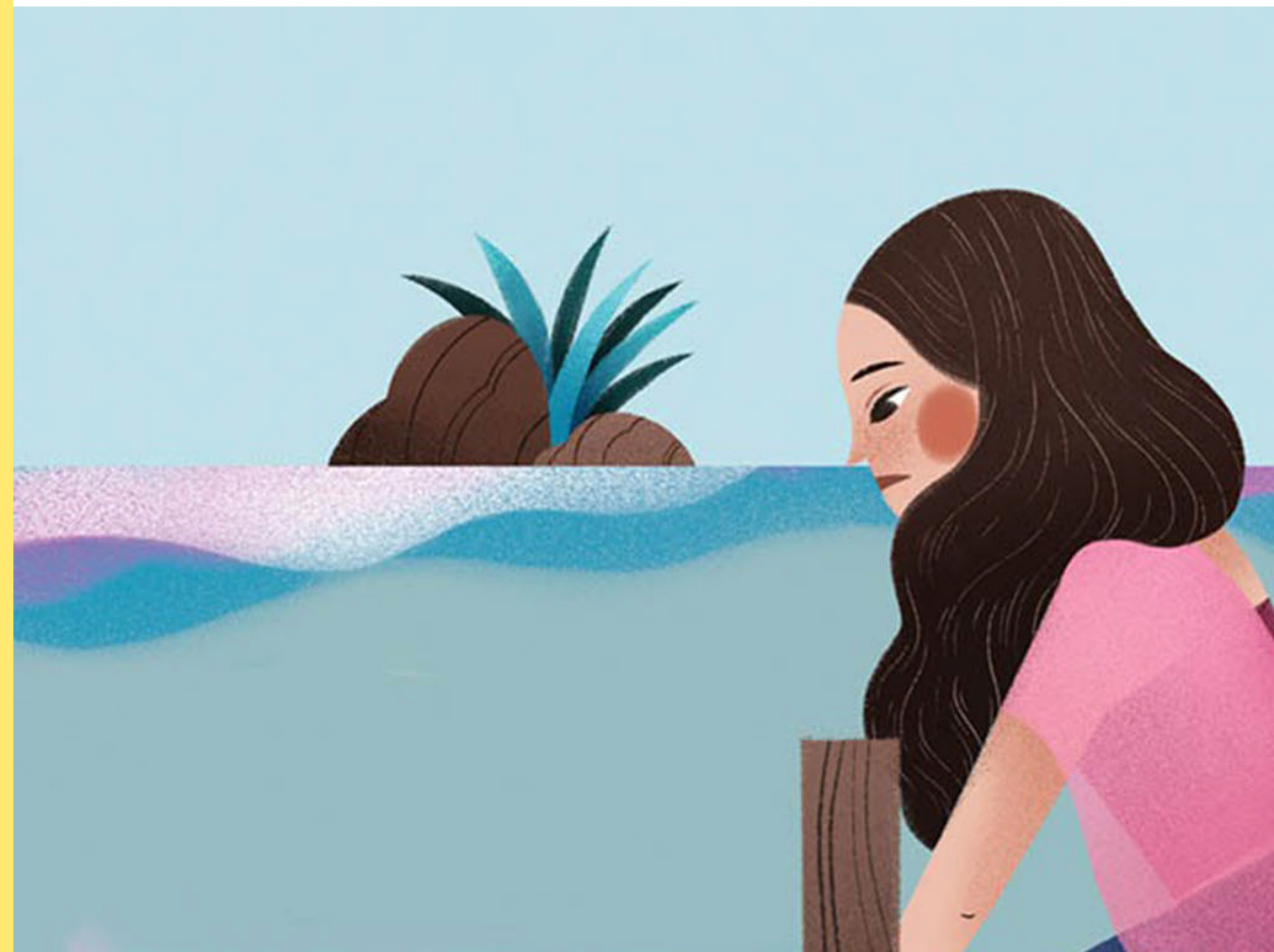
중국어 번역 | Wenting Du, 교정: 이흠

영어 번역 | Jennifer An

태국어 번역 | 김주영, 감수: 분타리카 너이씨 (บุณทริกา น้อยศรี), 교정: 채혜민

목소리 | 한국어: 윤성혜, 베트남어: 레 쉰언 비, 중국어: 곽효여,

영어: 제인 페인터, 태국어: 페와 떼차마하몽콘





옛날 태국의 어느 마을에 타라까라는 부유한 어부가 살았습니다. 타라까에게는 첫째 부인과 예쁜 딸 으어이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타라까는 부인을 사랑하지 않았기 때문에 둘째 부인과도 결혼을 했고 두 명의 딸을 더 갖게 되었습니다.



어느 날 타라까는 첫째 부인과 물고기를 잡으러 갔습니다. 그런데 물고기를 한 마리도 잡지 못해 몹시 화가 났습니다. 겨우 작은 물고기 한 마리를 잡았을 때 부인은 물고기가 불쌍하니 놓아주자고 했습니다. 화가 난 타라까는 노를 휘둘렀고 부인은 그 노에 맞아 물에 빠져 죽고 말았습니다.



으어이는 이 소식을 듣고 슬픔에
빠졌습니다. 마음씨 고약한 둘째 부인은
첫째 부인이 사라진 것을 기뻐하며 두
딸과 함께 으어이를 괴롭히기
시작했습니다. 매일 혼자 온갖 집안일에
시달리는 으어이를 가엾게 여긴 첫째
부인은 금빛 물고기로 다시
태어났습니다.



물가에서 빨래를 하던 으어이는 금빛 물고기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물고기가 말을 하는 것을 보고 으어이는 깜짝 놀랐습니다. 하지만 곧 그 물고기가 엄마의 환생이라는 것을 알고 기쁨의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날 이후로 으어이는 매일 금빛 물고기를 찾아가 이야기를 나누며 위로를 받았습니다.



이를 알아챈 둘째 부인과 두 딸은 으어이 몰래 금빛 물고기를 잡아와 찌개로 끓여 먹어 버렸습니다. 평소처럼 물가에 간 으어이는 금빛 물고기가 보이지 않자 한참을 기다렸지만 끝내 만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힘없이 집으로 돌아왔을 때 부엌에서 금색 물고기 비늘을 발견했습니다. 으어이는 금빛 물고기가 죽었다는 것을 알고 몹시 슬펐습니다.



으어이는 금색 비늘을 뒷마당에
묻으면서 엄마가 나무로 다시
태어나기를 기도했습니다. 시간이 흘러
그 자리에는 아름다운 금빛 보리수가
자라났습니다. 으어이는 엄마가
보리수로 환생한 것이라 믿고
정성스럽게 나무를 돌봤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으어이 집 앞을 지나던 왕자가 아름다운 금빛 보리수를 보았습니다. 왕자는 왕궁 정원에 심고 싶어서 보리수를 옮기려 했지만 나무는 꿈쩍도 하지 않았습니다. 보리수의 주인인 으어이를 찾아간 왕자는 그동안 있었던 모든 일에 관해 들었습니다.



왕자는 착한 으어이와 사랑에 빠졌고
으어이를 아내로 맞아 궁으로
돌아왔습니다. 금빛 보리수도
함께였습니다. 둘째 부인은 질투심에
사로잡혀서 으어이 대신 자기 딸을
왕자의 아내로 만들기 위해 계락을
꾸몄습니다.



둘째 부인은 아버지가 위독하다는
거짓말로 으어이를 집으로 불렀습니다.
그리고 펄펄 끓는 물이 담긴 큰
항아리를 마루 밑에 숨겨 두었습니다.
서둘러 집에 온 으어이는 마루를
지나다가 뜨거운 물에 빠져 죽고
말았습니다.



둘째 부인은 으어이와 꼭 닮은 자기 딸에게 으어이 옷을 입혀 왕궁으로 보냈습니다. 둘째 부인의 딸은 왕자와 사람들을 감쪽같이 속이고 으어이 노릇을 했습니다.

한편, 죽은 으어이는 앵무새로 다시 태어났습니다. 으어이는 슬피 울며 산속의 도사를 찾아가 그동안 있었던 일을 털어놓았습니다.



도사는 으어이를 불쌍히 여겨 원래 모습으로 돌아오게 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외로운 으어이에게 왕자를 닮은 아들을 선물했습니다. 다시 사람이 된 으어이는 왕궁으로 돌아가 자기 자리를 찾을 수도 있었지만, 모두를 용서하고 아들과 함께 산속에 살기로 했습니다.



아들은 자라면서 자기 어머니인
으어이가 원래 왕자의 아내였고 둘째
부인에게 죽임을 당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아들은 왕자를 찾아가 무슨
일이 있었는지 모두 이야기했습니다.
왕자는 자신과 꼭 닮은 으어이의 아들을
보고 그 말을 믿었습니다.



왕자는 산속으로 마차를 보내 으어이를 왕궁으로 데려왔습니다. 그리고 그동안 거짓말로 자신을 속인 둘째 부인과 딸들에게 큰 벌을 주려 했습니다. 하지만 으어이는 이들을 용서해 주자고 했습니다.



어머님의 너그러운 마음씨에 둘째
부인과 딸들도 잘못을 깨닫고 진심으로
용서를 빌었습니다. 그리고 왕궁에서 다
같이 행복하게 살았습니다.

“금빛 물고기 이야기” is licensed under CC BY 4.0 by Enuma, Inc. & The Foundation SeeArt for Book Culture. To view a copy of this license, visit <http://creativecommons.org/licenses/by/4.0/>.

© 2019 by Enuma, Inc. & The Foundation SeeArt for Book Culture